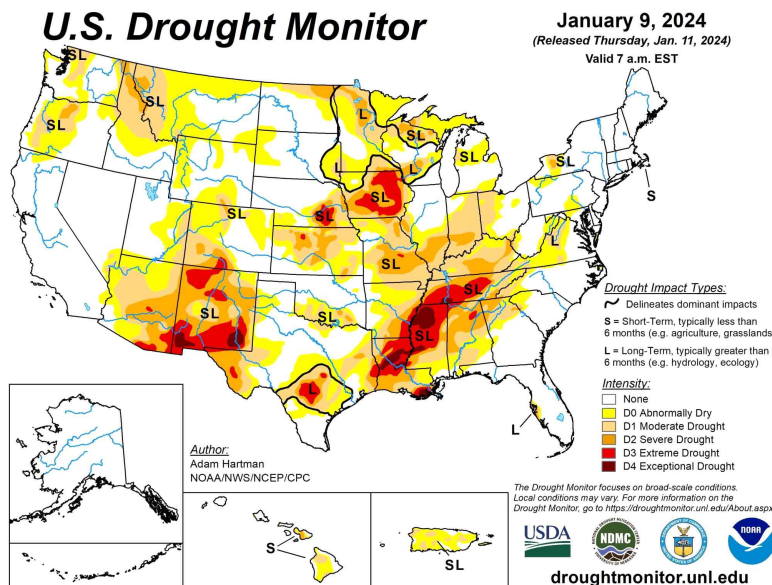


1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3)

□ 미국 기후 현황(1/7-1/13)

두 번의 심각한 겨울 폭풍이 북서부에서 시작해서 남서부로 휘어진 후 중앙 평원과 남부 평원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나아가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로를 보였다. 가축들은 겨울 날씨와 이어지는 극심하게 추운 조건들 때문에 다소 곤란을 겪었다. 두 폭풍 모두 캘리포니아 북부와 서부 산간지대 북부까지 먼 남쪽에 상당한 양의 강수를 발생시켰고 또한 중앙 평원에서부터 중서부 일부까지에는 폭설을 일으켰다. 한편, 폭우와 국지적으로 심한 뇌우가 남부 전역을 휩쓸었고 앨라배마에서 캐롤라이나까지의 일부 지역에서는 총 4인치를 넘어가는 두 번의 폭풍우가 쏟아졌다. 대서양 중부 및 북부 주들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강한 강수가 포화된 토양에 내린 결과 담수 홍수가 발생했고 한편 남동쪽으로 분 강풍이 해안 홍수를 일으켰다. 뉴잉글랜드 해안 일부에서도 주간 강수량이 4인치를 초과했다. 그밖에 고평원과 중서부 최상단 전역에서는 약한 강수만 관측되었다. 몬태나와 그 주변에서는 주말에 기온이 -30° F 이하로 곤두박질할 때 겨울밀을 덮고 있던 보호성 눈 덮개가 고르지 않거나 얇아서 동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추운 공기가 북부 및 중앙 평원과 서부 일부 전역에서 주간 기온을 평년 대비 최소 10-20° F 낮추었다. 그 추운 조건들은 1895-2023년 기록 기간 중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따뜻했던 12월이었다는 결과를 남기고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따뜻한 기간을 종료시켰다. 가장 추운 날씨는, 절대적인 의미에서나 평상시 대비 상대적인 의미에서나, 북부 고원 지대를 가로질러 집중되었다. 매우 추운 공기도 로키산맥 북부 전역으로 흘러들어갔으며 그중 일부가 북서부 내륙 전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대조적으로 오대호 주들의 일부와 북동부 대부분에서는 주간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최소 10° F 높았으나 주 후반이 되자 그 지역들에 급격하게 더 추워진 공기가 침입했다.



□ 농업 현황 요약

자료 없음

□ 세계 기후 현황(1/7-1/13)

■ 유럽:

대륙 남부에서는 국지적으로 계속 폭우가 내리기는 했지만, 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최근의 비와 변칙적인 따뜻함을 대체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중유럽과 북유럽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6° C 낮았고 스칸디나비아 남부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10° C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의 주요 겨울작물 지역들의 대부분은, 유럽 북동부와 발칸 반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호성 눈 덮개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대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최근의 폭우나 과도한 강우 이후 생긴 홍수가 영국 남부와 프랑스 북부에서 물러났고 이전에 지연되었던 야외 작업의 재개가 촉진되었다. 더 남쪽에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는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소나기 (2-30 mm)가 내려 토양이 반휴면 중인 겨울 곡물들에게 적합하게 수분을 축축이 유지해주었으며 국지적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더 많이 내린 비 (10-7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은)는 봄 성장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올려주었다.

■ 구소련(서부):

자료 없음

■ 동아시아:

자료 없음

■ 호주:

호주 동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되면서 면화, 수수 및 영양기 또는 생식기 중에 있는 기타 여름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가장 큰 비는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전역에 내렸는데 25-50 mm 이상 내린 것은 흔했다. 빅토리아 서부와 남호주 남동부에서는 그런 지속적인 습기가 겨울 작물의 늦은 수확을 방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겨울 작물들이 수확되었다. 습한 날씨가 동부에서 야외 작업의 속도를 늦추기는 했지만 그 비는 전반적으로 유익하여 여름작물의 전망을 개선하는 동시에 2023년 겨울작물 재배기 동안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일부 지역들에서 토양 수분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들에서 기온은 일반적으로 계절적이었고 최대 기온은 대부분 섭씨 30도 중반이었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농업 지역에서 보통 내지 강한 소나기가 계속되면서 수년간의 가뭄 이후 하층토에 있는 수분 보유량을 더욱 재충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코르도바에서부터 북쪽과 북동쪽으로 내린 총 강우량은 25-100 mm 였고 국지적으로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비슷한 양이 기록되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남부와 북동부 농업 지역들에서 평년보다 1-2° C 낮은 수준부터 먼 북쪽에서 평년보다 3° C 높은 수준까지 다양했으며 다시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상단과 40도 초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11일 현재 옥수수과 대두가 각각 88 및 95 퍼센트 파종되었다; 면화는 작년의 81 퍼센트 대비 92 퍼센트 파종되었고 한편 밀과 보리의 수확은 각각 거의 97 및 98 퍼센트 완료되었다.

■ 브라질:

광범위하게는 산발적으로, 국지적으로는 심하게 내린 소나기가 아직도 초기의 더위와 건조한 기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대두와 기타 여름작물의 상태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강우 (5-50 mm)가 습하게 우기가 시작된 이후 더 따뜻하고 더 건조해진 남부 농업 지역들에서는 특히 시기적절했다; 그 비가 시작되기 전에, 돌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 중 한 곳인 파라나와 주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상단에 이르렀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파라나의 초작 옥수수와 대두는 1월 8일 현재 각각 31 및 16 퍼센트 성숙했으며 두 작물 모두 1 퍼센트 수확되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옥수수가 1월 11일 현재 94 퍼센트 심겨져 있고, 현재 지상에 있는 이 작물의 75 퍼센트가 개화 내지 성숙 중이며 13 퍼센트가 수확되었다; 대두는 99 퍼센트 심겨졌고 13 퍼센트만 개화 중이다. 더 북쪽에서는 소나기 (대부분의 지점에서 25-100 mm)와 계절적인 기온이 더 일찍 심은 대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동시에 옥수수와 면화 파종에 맞게 포도를 적시는데 도움이 된다. 마투그로수에서는 대두가 1월 12일 현재 작년의 2 퍼센트와 대비하여 6 퍼센트 수확되었고, 옥수수와 면화의 파종은 각각 1 및 36 퍼센트 완료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보다 빨랐다.